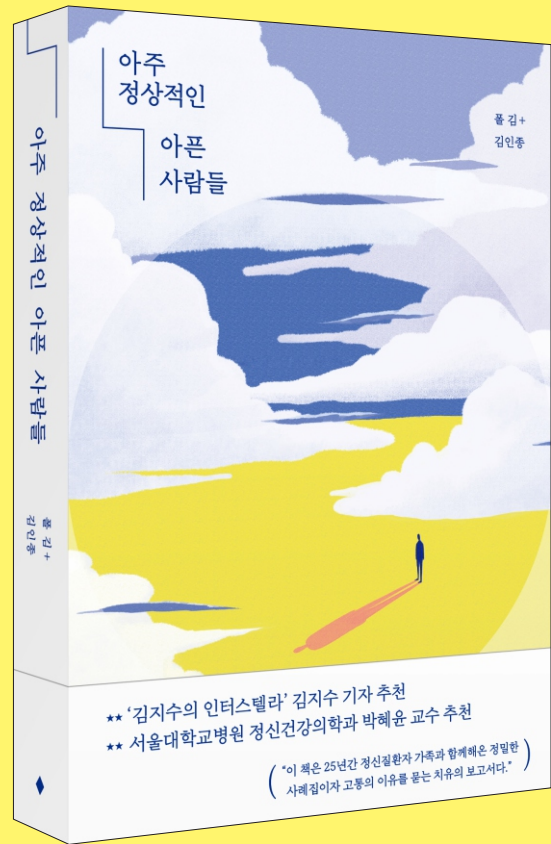


아주 정상적인 아픈 사람들



이 책은 25년간 정신질환자 가족과 함께해온 정밀한 사례집이자 고통의 이유를 묻는 치유의 보고서다. 저자 폴 김은 가족이라는 정신질환의 전쟁터를 누비는 중군 의사처럼 현장을 기술한다. 무정한 부모 앞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명문대 출신의 젊은이들, 망상에 빠져 칼을 든 청년들, 거리를 떠도는 홈리스들…… 현장으로 응급 출동하는 폴 김과 함께, 그들의 역동을, 회복의 기적을, 막지 못한 참변을, 가슴으로 읽는다.

김지수 기자,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저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몸이 아프듯 정신질환을 겪을 수 있다.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이토록 내밀하게 그려낸 책은 이제껏 보지 못했다. 정신질환을 의학적·사회적인 관점과 영적·심리적인 관점에서 균형 있게 들여다보는 이 책은, 정신질환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저자들의 삶을 통해 생생히 보여준다.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일독을 권한다.

박혜운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 시대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과학 문명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반면에 과학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인간의 마음에 관한 문제가 여기에 포함된다. 단순히 과학만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 이 책의 저자들은 마음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다루고 있다.

임성진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
내가 이 영혼의 싸움터에서 발견한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정신질환의 거대한 스펙트럼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

이라크 전쟁에서 트라우마를 안고 돌아온 니콜라스는
어머니를 살해해 감옥에 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던 스텔라는
조현병을 얻어 홀로 그늘진 삶을 살아간다.

어머니를 폭행하던 미셸은 경계성 인격장애 치료를 받고 회복했지만,
대학 복학에는 실패했다.

아프간 전쟁에서 돌아온 브라이언은 자살의 유혹을 이기고
제대군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능력 있는 남편 황준기를 자살로 몰고 간 의부증 아내는
오늘도 자녀들에게 그 증세를 뱉어내고 있다.

‘인간관계’는 정신질환 발병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치료의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인간관계와 더불어 오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책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책을 덮는 순간 우리는 자기만의 정신병동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저자 폴 김

1996년 선교사로 미국으로 건너가 목회학 박사(Doctor of Ministry) 학위를 받았다. LA에서 비영리기관인 정신건강가족미션(Mental Health Family Mission)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월드미션대학(WMU)에서 상담심리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NAMI(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가족교육 강사이기도 하다. 미국인 교회 Calvary Life Fellowship에서 사역했으며, 미국 오렌지새생명교회 담임 목사, 미국 제일중앙교회 대학부 목사를 역임했다. 28년간 조현병 환자였던 여동생을 암으로 잃은 그는, 평생을 정신질환자 가족들을 치유하는 데 바치고 있다. 그가 소장으로 있는 정신건강가족미션에서는 현재 400여 가정을 돌보고 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 그의 활동이 널리 알려지면서 그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저자 김인중

서울대학교 및 같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5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한국일보 미주 본사 사회부 차장, 미주 한인TV 네트워크 ‘라디오 서울’ 보도국장을 역임했다. 미국 언론인협회(LA Press Club)으로부터 4·29 LA 폭동 취재상을 수상했고, LA 한인기자 협회, LA 한인방송기자 협회에서 여러 차례 취재상과 특종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폴 김 소장과 함께 정신건강가족미션에서 일하고 있다.